

특 집

양돈업계에 널려 있는 거품을 빼자 정부기관에서 빼야 할 거품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우 리 나라는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나라경제 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온 국민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터무니 없이 부풀린 거품을 제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축산, 그 중에서도 양돈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대표되는 이 경제난국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양돈업계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1. 양돈단지 거품투성이다.

축산단지의 본래 설립목적은 5~10개 농가의 시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생산기술을 전문화시키며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등 생산의 협동화와 경영의 전문화, 공동화로 대처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양돈농가를 조직화하여 계열화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양돈산업의 숙제이므로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단지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개별농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돈분비료화 공장의 건립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이다. 이러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보다는 단지로 통합이 보다 효율적임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1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전국에 92개의 양돈단지를 조성, 638개 농가가 참여하여 631천두의 사육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단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 지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거품이 있으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양돈단지 대상자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 기존 단지중 규모를 확대하려는 사업자에게 돈사 및 부대설비의 80%를 용자하고 돈분 처리 시설, 전력인입, 용수개발, 도로정비 등 기반 시설비에 대하여 80%는 보조, 20%를 용자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한 결과 1997년말 현재 2,490 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단지당 평균 27 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정도이면 농업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 양돈 단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더구나 IMF 한파를 맞아 경영압박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단지는 없는지? 이러한 단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 지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거품이 있으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2 배합사료 가격에서도 거품을 빼야 한다.

사료업계는 환율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이유를 들어 배합사료를 지난해 말 40% 가까이 올린데다가 품질까지 떨어뜨려, 그렇지 않아도 IMF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환율과 국제곡물가격이 당시에 비하여 현격하게 내렸다. 사료가격 인상 당시 1,484

원이던 것이 1,387원으로 97원(6.7%)이 하락했고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도 최고 20%까지 내렸으니 당연히 배합사료 가격도 그만큼 인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합사료 업계는 그동안 발생된 환차손과 배합사료 수요감소에 따른 원료재고 증가 등 이유를 대면서 배합사료가격 인하를 주저하거나 흉내만 내는 인하에 그쳐 양축가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원망을 듣고 있다. 우선 축협이 지난 4월 1일부터 사료가격을 5.1% 인하하였다고는 하나 5.1%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양돈, 양계, 낙농사료는 3~5%, 상대적으로 값이 싼 한육우 비육사료는 6%를 각각 인하하여 여기에 판매고에 따

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 인하율이다. 이 정도의 인하율을 가지고 양축가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태부족이다. 양축가 단체인 축협이 이러한 진대 다른 일반 배합사료업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료는 양돈경영의 가장 중요한 자재이다. 따라서 양돈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사료업체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러한 긴밀한 연관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료업체가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사료가격 인하를 끝내 거부하거나 형식에 그친 인하로 때우려 한다면 말이 안된다.

차제에 사료업체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내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배합사료업체는 그동안 사료의 품질로 승부를 걸기 보다는 고급인력을 판매사원으로 내보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

는 실정이다. 사료가 과연 이처럼 고급인력이 일일이 농장을 방문해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어야 쓸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상

사료는 양돈경영의 가장 중요한 자재이다. 따라서 양돈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사료업체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러한 긴밀한 연관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료업체가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사료가격 인하를 끝내 거부하거나 형식에 그친 인하로 때우려 한다면 말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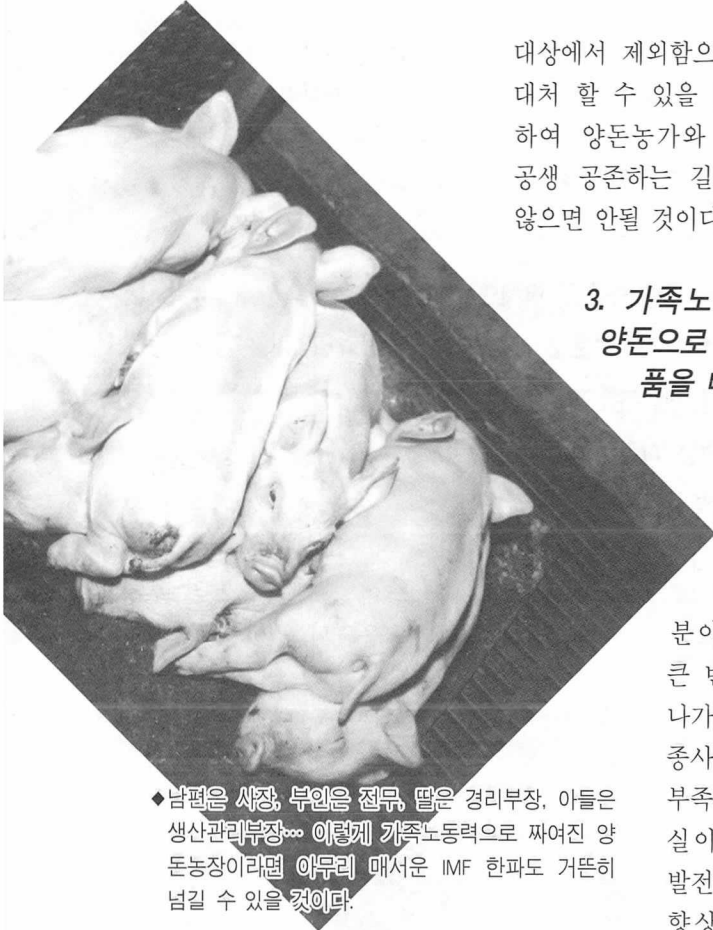
품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료업체는 판촉에 의

한 업계간 과당경쟁을 즉시 중단하고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절감된 부분은 모두 사료가격인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양돈 농가의 자가배합 사료(TMR)이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농가 자가배합사료용 수입 사료곡물을 공급할 때 수입 사료곡물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둔갑하여 국내시장으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입 사료곡물을 파쇄한 후 석회석, 어분 등을 섞어 공급하고 있다. 이것을



▲사료업체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절감된 부분은 모두 사료가격인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남편은 사장, 부인은 전무, 딸은 경리부장, 아들은 생산관리부장... 이렇게 가족노동력으로 짜여진 양돈농장이라면 아무리 매서운 IMF 한파도 거뜰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돈농가와 사료업계가 공생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가족노동력 중심 양돈으로 노임의 거품을 빼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농업분야에 종사할 노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향상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3D

에 종사하려는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고 비록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이나 의료 및 문화 혜택 등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더 강렬해졌기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IMF 한파로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귀농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그 노동력의 질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양돈 부문으로의 노동력 유입은 점차 막혀가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력에만 의존한 양돈 생산관리는 그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영주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양돈 규모가 어느정도 커지면서 농장경영은 고용노동력에 전적으로 맡기고 후선에서 관리하려는 형태가 적지 않다. 그리고서야 어찌 양돈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가족노동력 중심의 양돈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아직 국민소득면에서 우리가 이럴 단계가 아닌 듯 싶다. 월수입 100만원도 못되는 도시 회사에 아들을 내보내고 월 200만원이 넘는 고용노동력을 쓰는 양돈장이 있다면 한번쯤 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편은 사장, 부인은 전무, 딸은 경리부장, 아들은 생산관리부장... 이렇게 가족노동력으로 짜여진 양돈농장이라면 아무리 매서운 IMF 한파도 거뜰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돈업계의 거품은 도처에 불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뼈아픈 구조조정만이 양돈업계를 정상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養豚**

알곡 그대로 공급하여 직접 농가가 쓰면 10%의 TMR 사료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어서 농가의 입장에는 20~30%의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수입사료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해서라도 사료곡물을 알곡형태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만일 농가가 이를 부정으로 유출할 경우 기존에 공급해준 TMR 사료 생산시설자금을 회수하거나 원료곡물 배정